

특수교사의 성실실패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s of honorable failure

김정연, 허유성*, 김나연(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약 〉

이 연구는 특수교사의 “성실과 실패” 경험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여 실패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성실과 실패” 경험에 관한 사전자료 조사와 인터뷰 전에 소그룹 활동, 2회의 FGI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공유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는 텍스트 마이닝 프로그램과 전사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특수교사의 “성공감”과 “실패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교수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3개의 대주제와 18개의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를 통해 ‘성실’을 갖추고 있는 특수교사의 특성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현장에서 유능하고 좋은 특수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특수교사, 성실실패, 질적 연구

I. 서론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는 자연과학, 과학기술, IT 등 실패 가능성이 높은 연구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연구 성과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연구자의 ‘성실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제재조치를 면해주는 제도이다(이정수 외, 2013). 이 제도는 성실한 실패에 대해 인정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배윤호, 최석철, 2010),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점을 가진다. ‘실패’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혹은 ‘기대치와의 차이’, ‘부족’, ‘비효율화’, ‘미달’, ‘미성취’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하다(Hlavacek et al., 2009). 이러한 개념을 교직에 적용하면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수행하는 ‘성실실패형’ 교사들이 ‘실패’를 교훈으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성취(achievement, performance)’는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특수교사 역시 이러한 ‘성취지향’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수교육 현장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성취’를 강요당하고 있다. 일반교사와 비교하여 볼 때 특수교사는 성실성과 동시에 탈진감이나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비율이 뚜렷이 높다(강영심, 2011; 윤혁, 허유성, 2013; 이옥인 외, 2011). 교직생활을 힘들어 하는 특수교사의 비율 역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한경임, 2003). 높은 스트레스나 탈진감을 경험하는 교사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유형은 ‘교직현장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데 원하는 만큼의 성취(감)를 하지 못해서 자신을 질책하거나 좌절감을 경험하는 특수교사’로, 현장에서 이러한 유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성실 = 성취(성공)]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성실한데 성취가 없는 경우 심리적 좌절감이나 스트레스 강도는 더욱 크다(김지현, 황옥경, 2011). 성실한 개인이 사회에서 높은 성취를 보인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성실실패형’ 특수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성을 분석하여 실패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성실’을 갖추고 있기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면 교육현장에서 유능하고 좋은 특수교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 허유성(교신저자) : 조선대학교(heoyusung@chosun.ac.kr)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에 의해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특수교사의 “성실과 실패” 경험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광주, 전남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15명을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특수교육의 담당 장애영역과 교사의 성별, 연령,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의 형평성 확보와 연구 타당도 제고를 위해 참여자 선정 시 성별, 경력, 주 장애유형, 학교급 등을 고려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 수행하였다.

2. 조사 도구

‘성실’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등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질적 연구의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전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특수교사의 “성실과 실패” 경험에 관한 사전 활동지를 제시하여 ‘성실’과 ‘실패’로 생각되는 기준 5가지를 적고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연구 절차

“성실과 실패” 경험에 관한 조사지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자료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성공’, ‘실패’, ‘성실’로 생각되는 기준 5가지를 우선순위로 적고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15명으로부터 3개 주제에 대해 5순위씩 총 225개의 기준을 수집하였다. FGI에 참여자들은 인터뷰 전에 소그룹 활동을 실시하였다. 소그룹 활동(2-3명)은 참여자간 대화를 통해 “성공감”과 “실패감”에 대한 경험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하는 활동이다. 최종적으로 6개의 마인드맵이 제작되었다. FGI는 모두 2회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FGI는 150분가량 소요되었다. 소그룹 활동과 FGI에서 나눈 이야기는 녹음하였으며, 텍스트 자료로 전사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사전 자료 조사 내용과 소그룹 활동으로 수집된 마인드맵의 내용은 ‘한글 2014’와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LoadUP’ 베타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데이터엔지니어스랩에서 개발한 ‘LoadUP’ 프로그램은 텍스트 마이닝 프로그램으로 형태소 분석 및 개체명 추출이 가능하고, 키워드 빈도수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이 가능하다. ‘한글 2014’와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LoadUP’을 통해 산출한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xcel 2013’과 SPSS 2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FGI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전사본은 자료 분석 계획에 따라 정해진 분량을 읽으며 개방적 코딩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간 공동의 숙고 과정을 통해 응답 내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하며 자료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교사 의견 개관

교사들이 작성한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한 뒤 빈도를 분석하였다. 주제별로 1-5위까지 분석하였으며, 클라우드(World Cloud)로 정리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는 빈도 순위 외에 상대적인 빈도의 정도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성공한 특수교사”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는 ‘관계’, ‘수업’, ‘학생’, ‘학부모’ 등이었다. 특수교사의 성공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수업을 잘하고, 학부모, 학생과 소통을 잘하며, 동료들과 협력하며, 변화를 시도하는 교사를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였다. “실패한 특수교사”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는 ‘수업’, ‘관계’, ‘학생’, ‘동료’ 등이었다. 타인과의 소통 부재, 무관심, 무계획성, 개인주의 등이 언급되었다. “성실한 특수교사”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는 ‘수업’, ‘준비’, ‘학생’, ‘노력’ 등이었다. 높은 빈도를 보인 주제들은 소통, 책임감, 관리, 관계 등이 언급되었다.

2. 주제별 교사 의견 분석

마인드맵핑을 활용한 소그룹 활동과 FGI에서 수집된 특수교사의 “성공감”과 “실패감”에 관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존감, 성격적 특성,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지속성, 인내심, 끈기, 직업만족도, 자기계발과 자기반성 등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교수적 요인으로는 학생중심의 교육관, 수업 역량, 창의적 업무 역량, 영향력 있는 교사, 학생의 변화, 방향성 있는 교사 등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식, 신뢰로운 관계, 소통, 행정업무역량, 경제적 안정감 등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IV. 논의

‘성실실패형’은 시급히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사 유형이다. ‘성실실패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교직을 수행하나 그 결과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유형이다. 학교 내 업무, 학생과의 관계, 수업,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이들은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수업을 준비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취감을 경험하기 보다는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일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경우가 많다. 불성실한 교사에게는 ‘성공적 성취’가 성실한 교사에게는 ‘부족한 실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성실실패’는 교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교직을 시작한지 10년 미만의 ‘성실실패형’ 교사가 경험하는 실패감이나 좌절감은 이후 유능하고 좋은 특수교사로서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정연 외, 2013).

성실한 교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면 업무수행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유발하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haufeli et al., 2009; Freudenberg & North, 1986). Sindelar et al.(2012)은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 학생에 대해 더 강한 책임감과 목적의식을 가진다. 이에 성취감 감소와 정서적 고갈 간에 높은 정적 관계를 보인다(이재일, 2011). 성실하고 성과를 내는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방향 제시 및 지원체제 개발과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영심 (2011). 특수학급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예비특수교사의 인식. 통합교육연구, 6(1), 45-63.
- 김정연, 허유성, 임장현 (2013). 좋은 특수교사로서의 성장과 관련된 요인 및 경험. 특수교육, 12(1), 5-30.
- 배운호, 최석철 (2010). 국방R&D분야에서 성실실패제도의 적용에 관한 검토. 한국방위산업학회지, 17(1): 203-226.
- 윤혁, 허유성 (2012). 업무강도와 교직경력이 초등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탈진감과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경

- 로 비교. *통합교육연구*, 7(2), 143-164.
- 이옥인, 홍재영, 박은영 (2011). 특수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13(3), 371-385.
- 이재일 (2011). 학교조직 특성, 사회적 지원, 교사의 전문적 발달, 자아효능감 및 교사 소진간의 관계. 박사 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정수, 길부중, 전희성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실실패제도 개선방안. *기술혁신학회지*, 16(1), 346-366.
- Freudenberger, H., North, G. (1985). *Women's burnout*. New York: Daubleday.
- Shaufeli, W. B., Leiter, M. P., & Maslach, C. (2009). Burnout: Thirty-five years of research and practice.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4, 204-220.
- Sindelar, P., Rosenberg, M., Corbett, N., & Lotfinia, B. (2012). Cost effectiveness of alternative route special education teacher preparation. *Exceptional Children*, 79(1), 25-42.